

‘광주형 일자리’ 사업 31일 최종 결판난다

제3차 원탁회의서 현대차·지역노동계 마지막 조율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28일 광주시·노동계·전문가·공익대표·시의원 등이 참석한 제2차 원탁회의에서 협약서 수정안에 대해적인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지역노동계는 29일부터 이어지는 내부 회의, 협상 등 숨가쁜 일정을 31일 오후 8시 최종 원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올 3분기 최악의 실적 부진이 돌발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현대차가 수정된 협약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8일 “지난 25일 오후 제1차 원탁회의에서 광주시, 노동계, 전문가, 공익대표, 시의원 등이 ‘투자유치추진단’을 구성한 뒤 이어진 제2차 원탁회의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최됐다”고 밝혔다.

투자유치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원탁회의의 참석자들은 이날 노동계와 전문가 등이 검증하고, 수정된 협약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의 협상팀 구성을 위임받은 광주시는 오는 30일 현대차와 수정된 협약서를 토대로 다시 협상에 나선 방침이다.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1일 오후 4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노동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제3차 원탁회의에서 현대차, 지역노동계 간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지역노동계에서는 제2차 원탁회의에서 타력 근무제 등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 일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 등의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종해 의장은 “기존 협약서에는 실무

자가 이루어진 뒤 논의돼야 할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최대한 단순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라며 “불필요한 조항을 제외하거나 수정·보완하는데 합의한다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노동계 역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희망하며,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가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정 협약서를 30일 현대차가 수용하고, 31일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 제3차 원탁회의를 거쳐 노사민정협의회 의결까지 이번주에 마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주말 다음주 초 현대차와의 협약 타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3분기 실적 부진 속에 타계책 마련에 분주한 현대차와의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병훈 부시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이번 사업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수정 협약서를 현대차가 받아들여 줄지 우려가 높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정 협약서에 대한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제3차 원탁회의가 될 것”이라며 “결국 마지막날인 10월 31일에서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0%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1.2%로 3.8%포인트나 하락했다. 2013년까지 2조원을 넘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네 분기째 1조원을 넘지 못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 국화축제 ‘2018화순 국화향연 축제’가 열린 28일 관광객들이 향황색색으로 물든 국화꽃을 보며 걷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갯살갯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다음달 11일까지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관련기사 13면.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하라”

호남 국회의원들 31일 회동 본격 공론화 ... 이슈 급부상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공론화를 위해 전격 회동에 나서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이날 회동에는 당일 개성공단 방문을 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의원들이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평택-오송 북부선화를 대신해 천안-아산-세종-공주-익산으로 연결하는 방안

이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평택-오송 북부선화와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고, 행정수도인 세종시 활성화와 함께 호남 KTX의 시간 단축과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이날 회동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이 세종역을 통과하는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에 의견을 모은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세종역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KTX 노선 문제가 정국의 이슈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역 신설을

두고 오송역이 있는 충북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충청권 내부의 논란이 상당한 상황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사·도지사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에 세종역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정치권이 세종역 신설에 찬성하고 나선다면 KTX 노선 문제는 지역은 물론 정치적 이슈로도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인 세종시 활성화와 호남 KTX 시간 단축 및 요금 인하 등의 명분이 충분해 세종역 신설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총리 내달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달 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28일 밝혔다.

광주 학생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항일 운동으로 꼽힌다. 이 학생운동은 1929년 10월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발단이 돼 일제의 탄압과 차별교육을 반대하며 11월3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이어졌고, 전국 5만4000여명

의 학생이 참여한 거국적 항일운동이다.

정부는 1953년 11월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했으나 1973년 유신정권 때 폐지됐다. 1984년 다시 ‘학생의 날’을 부활하며 기념식 주관 부처를 문교부로 했다. 이어 2006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승격, 교육부가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국가 차원의 기념식을 열었으나, 그 이후에는 지방교육청별로 행사를 주관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초겨울 추위 ... 이번주 아침최저 5도 ‘쌀쌀’

광주·전남에 찬복서풍이 찾아오면서 31일 오전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에서 확장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에는 기온이 푹 떨어져 춥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7~19도의 분포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기온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은 당분간 평년보다 3~7도 정도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1일의 경우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나주 2도, 광주 4도, 순천 5도, 광양 5도로 목포·여수·흑산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이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
유학생들의 '5·18 생각' 집담회
- 광주정신, 아시아 민주화 이끌어 >6면
KIA 호랑이가족 한마당 두 얼굴
-뜨거운 환호·성난 팬심 교차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www.gaok.or.kr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지방자치를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행복해집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 장소 : 경상북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주최 : 지방4대협의체, 행정안전부 등

행복한 내일은
어떤 세상일까?
지방자치가
물음에 답하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